


##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국립중앙박물관 2020-53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김세원 TEL 02-2077-9414   sewonee@korea.kr
<b>보 도 자 료</b>	■ 2020. 8. 24. 배포 ■ 붙임: 사진자료 1부. ■ 총 2매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 간송미술문화재단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

### 상설전시실에서 국민에 공개할 예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올해 5월에 경매시장에 출품되었던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박물관이 재개관하는 시점에 맞추어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3년 1월 21일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을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것은故 간송 전형필 선생이 남긴 우리 문화재 수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두 불상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시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불상 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불상 두 점은 그동안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소장해 오다가 경매에 출품하였으나 응찰자 없이 유찰된 바 있다. 이 두 불상의 경매 출품 사실이 공개되면서 문화계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故 간송 전형필 선생의 큰 뜻이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최종 경매가 유찰된 이후, 6월 중순경 간송 측과 경매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먼저 구입 의사를 타진하였고, 박물관은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7월 말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결정했다.

이번 불상 구입과 관련하여 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한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관하여 결실을 맺게 해준 케이옥션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두 불상을 전시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재로서 선보일 예정이며,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하였던 사항들을 조사·연구해나갈 것이다.

붙임 사진 자료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김세원(02-2077-94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